

군사주의가 재현되고 실천되는 공간으로서의 남녀공학대학교 -평생교육학적 개입 장(場)-

나윤경(연세대학교, 조교수)*

요 약

거의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군대는 생애주기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군과 관련한 담론 지형은 만들어 지지 않아왔다. 소수 여성주의자들에 의한 담론은 여성에 대한 군사주의의 영향과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성별정치가 군사주의 유지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장치임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군대에서 대학으로 다시 돌아온 이른바 '복학생'과, 그들과 교류하고 있는 여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군대와 남녀공학대학교가 만나는 지점을, 제도교육과 평생교육이 교차되는 곳으로서의 남녀공학대학교를 분석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1) 군 경험에 대한 폭력중심의 서사, 2) 군에서의 폭력 경험과 대학 내 위계적 선후배 관계, 3) 군 경험에 대한 서사 속의 두 여성, 4) 군에서의 성 경험과 후배 여성에 대한 시선 등 네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범주는 두 개 이상의 하위 범주를 갖는다.

대학생들은 생애 발달 단계상 성인 초기에 위치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재학 중 내면화하는 가치는 성인기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인식에 기반한다면, 대학은 성평등적이며 민주적인 가치가 기능하는 공간으로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 과정 중의 하나로 대학과 군사주의를 만나게 하는 매개자로서의 복학생들에 대해 군사주의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적응 프로그램의 기획을 제안한다.

주제어: 남녀공학대학교, 군사주의, 대학생, 대학문화, 평생교육

I. 서론

대한민국은 징병제로써 대부분의 남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나라이므로 거의 모든 대한민국

* 제 1저자: 나윤경(120-74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외솔관 221호, ynah@yonsei.ac.kr)

남성들에게 군대는 생애주기의 일부분이다. 전 세계 76개국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유일하게 ‘적과 24시간 대치’하고 있는 휴전 중인 나라에서 실시되는 것인 만큼 그 필요성이나 의무적 실천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비)합법적으로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남성을 시기 반, 부러움 반으로 ‘신(神)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군은 피해 가기 어려운 통과 의례이다. 군이 남성들의 생애주기 중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례적 공간임을 자연화하는 언설인 “군에 가야 철든다.” “남자라면 군에 가야 한다.” 등은 ‘말썽 많던 김상사가 의젓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곳’으로서의 군대를 의미한다. 군대는 남성들을 철들게 하고 의젓하게 성장시키는 남성의 생애주기적 공간인 것이다.

남성들에게 군 경험이 꽤 일상적인 것을 상기한다면, 군과 관련해 ‘가야 한다.’ 혹은 ‘가야 철든다.’ 이외의 다른 방식의 담론 지형이 만들어 지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다. 현 대통령을 비롯, 학자, 정치가, 연예인, 운동선수, 언론인, 소설가, 예술가, 종교인, 법조인, 행정가 등 99명의 남성이 펴낸 책 『성공하고 싶다면 군대에 가라 1, 2,』는 군대가 남성들을 철들게 하는 곳이니 만큼 남자라면 반드시 가야함을 드러내는 대표적 언명서이다. 99가지의 개인적 에피소드를 엮은 이 두 권의 책은 군인 개개인의 일상적 경험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개개인’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99가지나 되는 에피소드는 ‘힘들었지만 군대는 역시 가볼만한 곳’이라는 당위적 명제를 축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한 가지의 에피소드만으로도 책 전체 내용을 대표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개개인의 특수한 경험과 그에 따라 ‘다른’ 성찰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생애주기로서의 군대와 그곳에서 내면화한 군사주의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페미니스트 학자 씬씨아 인로(Cynthia Enloe)가 많은 저서들을 통해 군사주의를 촘촘하게 분석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권인숙, 심영희 등 다수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군사주의를 그들 논의의 주요한 지점으로 구성해왔다. 군사주의와 평화(심영희, 2005; 정희진, 2005), 군사주의와 가부장제(권인숙, 2005; 변화순, 1995), 군사주의와 남성중심성(유영숙, 2003; 이동훈, 2001), 군사주의와 일상성(권오분, 2000)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군사주의가 (남성을 배제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 왔는가를 드러내면서 남성들의 군 경험과 우리사회의 성차별성을 연결한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에 대한 군사주의의 영향과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성별정치가 군사주의 유지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장치임을 드러내고 있다(정희진,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군사주의가 ‘일상적’ 지점에서 어떻게 재현, 강화, 학습되는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남녀공학대학교를 배경으로 군사주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남녀공학대학교를 군사주의 연구의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남녀공학대학교가 사회의 다

른 남성중심적 조직과는 다르게 군에서 ‘방금’ 제대한 남성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다른 어떤 곳보다 군사주의가 ‘실시간’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권오분(2000)의 연구가 남녀공학대학교에서의 군사주의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남녀공학대학교를 경험한 여성과 남성 구성원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21명의 연구 참여자(인터뷰이) 중 17명이 여성이며 이들은 대부분 대학원생이거나 주부 혹은 직장인이어서 군에서 갓 제대한 남성들과 ‘현재’ 교류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인터뷰 역시 주로 과거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나머지 4명의 남성들 중 2명은 직장인이고 나머지 2명도 재학생은 아니다. 따라서 권오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 안에서 재현되는 군사주의의 현재성을 이해하는 데는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 본 연구는 남성 재학생을 중심으로(남녀 인터뷰이 성비 7:4) 남녀공학대학교에서의 군사주의를 연구한다.

대한민국 군대와 남녀공학대학교는 조직구성원의 남성편향성 때문에 이제껏 여성의 경험과 시각으로 조명되어 본 적이 거의 없다는(권오분, 2000; 나윤경, 2005)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여자 군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69만 명의 군인 가운데 약 23%에 해당하는 15만 9천 명이 여성 배우자들의 재생산 노동을 통해 그들의 군생활을 유지 강화해왔다는 것은(권인숙, 2005) 군대가 온전히 남성들만으로 이루어져 왔고, 남성들에 의해서만 유지 발전되어 온 곳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근거이다. 군대와 관련한 여성들의 다양한 방식의 경험이 가시화 되어야 할 시점이다.

남녀공학대학교 역시도 약 60년 전 연세대학교가 남녀공학대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여학생에게 대학교육의 문호를 개방한 이후 여학생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 현재 여학생의 수가 총 학생 수의 약 30~40%에 이르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구성원의 남성편향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학과 대학교육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시각과 해석이 대학에 대한 이해에 드리워져야 한다. 여성의 경험과 시각으로 충분히 이해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외에도 대학교는 제도교육이면서도 초중등학교와 비교해 제도교육에 관한 연구주제로서나 대상으로서 거의 주목되지 못했으며, 그 구성원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인교육이나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주제나 대상으로도 충분히 선택되지 않아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군대에서 대학으로 다시 돌아온 이른바 ‘복학생’들,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경험을 매개로 군대와 남녀공학대학교가 만나는 지점을, 제도교육과 평생교육이 교차되는 곳으로서의 남녀공학대학교를 분석하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군대문화, 군사문화, 군사주의

홍두승(1996)은 군대의 전통 및 관습 등 군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온 집단문화를 군대문화로 정의한다. 홍두승의 정의를 다시 기술하자면 군대문화란 군대 안의 구성원들이 (징병으로 이루어진) 한국 군대를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군 안에서의 삶의 방식과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조직과의 비교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 군대문화라는 홍두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군대문화는 용병으로 성립된 미국군과 비교해 다른 방식의 군대문화를 발전시켜왔다고 기술될 수 있다. 따라서 군대문화는 사회의 하위 조직으로서 군대가 갖고 있는 하위문화의 일종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군사문화는 민간 사회 문화라는 비교 대상을 상정하고 있으며 주로 그것과의 상이점을 밝힘으로써 정체가 명확해진다고 지적한다. 홍두승이 언급한 군사문화(홍두승, 1996: 120-125)의 내용으로는 권위주의, 획일주의, 형식주의, 보수주의, 집합주의, 완전무결주의, 공공조직주의 등이 있다.

군사문화와 민간문화를 구분함으로써 군사문화의 특징을 밝히려 한 홍두승과는 달리 현역 직업 군인인 연구자 이동훈(2001)은 군대문화와 군사문화를 구별하지 않고 군대문화로 통일해 사용하면서 군대문화가 일반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생산하고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동훈은 군에서 접한 남성중심적인 성담론이나 매매춘 여성들과의 성 경험, 왜곡된 성역할 의식,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이 제대 이후에도 남성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군대문화와 일반사회가 소통하면서 우리사회의 가부장성을 유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변화순(1995)은 이동훈과는 달리 군사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한 상태로 우리 나라 여성들의 삶 곳곳에 남성중심적 관행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군사주의와 가부장제는 거의 비슷한 의미의 다른 두 단어이다.

권오분(2000)과 권인숙(2000; 2005a)은 군대문화나 군사문화가 전제하고 있는 위계성, 폭력성, 공격성,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아우르는 성별성 혹은 성차별성의 내면화와 일상화를 군사주의로 정의한다. 권인숙(2000)은 무고한 이라크 시민들을 향해 미국군이 미사일 공격을 할 때마다 60%의 미국인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은 그들이 군사주의에 포섭되었거나 군사주의 가치체계를 내면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군사주의는 전쟁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활동으로 보이게 하는 가치관의 체계라는 것이다. 상시 전쟁 치를 준비를 하며, 상대방에

게 전쟁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실제로 도발하기도 하며, 전쟁에 나가서 상대와 싸우고 그 결과 죽이거나 죽는 주체는 남성으로 개념화되어 왔기 때문에 군사주의란 근본적으로 성별 정치학을 전제 한다.

게다가 정희진(2005)의 지적대로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를 국방,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로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구 범주에서 제외된 성인 여성과 장애인을 국민으로 호명하지 않음으로써 성차별적이며 비장애 남성중심적이다. 이 두 그룹의 인구 중 특히 여성은 재생산 노동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책임진다 해도, 아무리 열심히 (재)생산 노동에 임한다 해도, 그리고 꼬박꼬박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다 해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평등성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군대도 안 갔다 온 주제” 혹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열등한’ 국민으로 몰리고 만다. 이러한 성별 정치학은 여성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군인들의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군에 간 아들, 남편, 애인을 보살피는 어머니, 아내, 애인으로서의 보살핌 역할을 무화시키며 여성들을 언제나 ‘보호 받는 약자’로 규정하는 등 여성들의 역할을 비가시화 혹은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성차별적이다.

본 논문은 군대문화와 군사문화를 일상적 가치로 내면화한 일군의 남성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성별성과 성차별성을 일상적인 가치로 내면화한 군인(이동훈, 2001) 중 일부분이 제대 후 바로 돌아가는 남녀공학대학에는 그들의 성차별 대상이었던 여성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동훈(2001)의 학위 논문 ‘군대문화의 남성중심성과 양성평등교육’에 따르면 “(남성군인) 그들은 TV나 스포츠 신문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들은 물론이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부터 동료 군인을 면회 온 애인까지 탐욕스런 눈으로 응시한다”(24). 박노자(2000)는 군대 안에서 내면화 혹은 더욱 강화된 여성에 대한 대상화 시각을 두고 군인들이 남녀관계를 ‘교미’ 이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조건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녀공학대학교라는 공간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곳이 제대한 일군의 군인들이 군대 안에서 내면화 혹은 강화하게 된 남성중심적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바로 옮겨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제대한 군인들이 시차 없이 이동한 남녀공학대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학을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2. 대학교: 평생교육학적 개입의 장

교육학분야 연구자들의 다수가 대학에서의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학교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대학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흥미롭다. 또

한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대학생들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인교육학과 평생교육학적 관점의 조명을 받지 못했던 점도 특이한 현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대학교들이 세계화 표방과 함께 세계 우수 대학과의 비교를 위한 객관적 목표 달성에 방점을 두면서, 대학교육의 지향점, 대학교육의 질, 대학의 대사회적 역할, 대학교 구성원의 만족 등과 같은 교육의 비가시적 측면, 이른바 ‘가치관’ 교육은 경시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대학생들 역시도 토플이나 토익, 외국어 회화 능력, 혹은 각종 고시 준비와 같은 객관적 ‘기술’만을 함양하려 할 뿐, 다양한(혹은 특정) 이데올로기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하여 사유방식을 ‘기획’ ‘확장’해 보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가치관을 배제한 객관적 기술만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대학생들 역시 객관적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사회에서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가 비판한 ‘적립식’(banking) 학습은 대입을 위해 활용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도 그것에 많은 부분 의존해 있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교류할 수밖에 없는 세계화의 맥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생들을 추동하는 것이 객관적 능력에 대한 맹신임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면, 가치관 교육이나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객관화시키는 과정으로서의 대학교육은 필수적이다. 전환학습이론을 구축한 잭 메지로(Jack Mezirow)에게 있어서 성인 학습자가 갖고 있을 것으로 확신되는 능력은 시각 전환의 능력, 즉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학습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초반에 이른 대학생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탐색하거나 그것들에 몰입할 기회를 대학교육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학습자의 능력을 사장(死藏)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교육의 교육과정, 특히 교양교육 과정은 좀 더 명확하게 세계화를 전제하는 다문화, 다문화적 가치 혹은 다문화적 감수성 교육을 표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이 의도하는 바는 학습자들이 남성중심주의, 엘리트중심주의, 중산층중심주의, 백인중심주의, 비장애자중심주의, 이성애자중심주의 등 ‘-중심주의’가 갖는 폭력성과 차별성을 비판하고 성찰하면서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돕는 것이다(김현미 외, 2005). 김현미 외(2005)가 주장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고등교육을 경험하는 기득권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도 역시 다양한 중심 중의 하나일 뿐임을 인식하게 하거나, -중심주의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것을 대학교육이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주의’의 무화(無化)는 가부장적 지형을 확실하게 구축한 우리사회의 성인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제시한다. 권오분(2000), 김은진(2002), 나윤경(2003; 2005), 정해숙(1997) 등은 남녀공학대학교와 여자대학교를 직간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수자의 성별 혹은 성비가 교수-학습에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대학교육의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권오분(2000)과

김은진(2002)은 이른바 제대한 ‘복학생’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다른 학습자들, 특히 여학생들과 맺는 권력관계가 평등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권오분은 남녀공학을 졸업한 17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을 인터뷰함으로써 공학대학에서의 남녀 관계가 복학생을 중심으로 군대처럼 위계적임을 드러내었다. 김은진은 여자대학교가 공학대학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여성의 수는 줄어든다고 지적한다. 여자대학교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복학생’이 공학으로의 전환과 함께 생기면서 여학생들이 복학생들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성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신 남성성을 재현하고 남성과 동일화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리더십 역할에 대해 주변인이 된다고 밝힌다.

권오분과 김은진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면서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한 학생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내면화한 군사주의란 무엇이고, 그것이 남녀공학대학교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고, 그 재현의 내용이 군대를 가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학교육이 교양과목, 학생 오리엔테이션, 특강, 혹은 전공 과목 교육 등을 통하여 군사주의가 전제하는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성찰하는 데 개입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학습자들의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지식 함양을 도울 뿐 아니라, 성인 학습자들의 능력 중 하나인 시각 전환 능력을 자극함으로써 대학이 평생교육을 위한 중요한 장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III. 연구방법과 연구 정보 제공자

연구방법으로는 인터뷰를 사용했다. 복학생들의 일상적 관계 맺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군대에서의 경험, 그 경험에 대한 의미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제대 후 동료들과의 관계 맺기에 어떤 방식의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가 인터뷰 이외의 방법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 정보 제공자(인터뷰이)로는 현재 남녀공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7명의 복학생과 4명의 여학생을 전공별, 군복무 형태별로 고루 선정하였다. 여학생의 경우(사례 1~사례 4) “복학생과의 대학생화에 관한 연구에 도움을 줄 분”을 키워드로, 남학생의 경우(사례 5~사례 11) “군대에서의 경험과 복학 후 대학생화에 관한 연구에 도움 줄 분”을 키워드로 하여 교내 인터넷으로 모집했다.

인터뷰는 군대에서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시작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연구자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대부분 군대에서의 생활이 비슷한 내용으

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주어진 질문 자체는 사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군대 내에서의 폭력양상, 휴가 시기와 휴가 중의 활동 내용(사창가 방문 경험과 그것에 대한 군내에서의 언설화/재학 중인 동료 혹은 후배 남녀학생들과의 관계 등), 복학 후 적응상의 어려운 점(인간관계 등)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인터뷰는 각 사례 당 2시간가량 한 번 진행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 후속 인터뷰가 진행되기도 했다(사례 1, 7, 11). 연구 정보 제공자는 다음과 같다.

사례	학년	전공	복학생만난곳(여)/군복무형태(남)	복학시기(남)
1	2(여)	간호학	동아리	
2	3(여)	교육학	수업	
3	4(여)	경영학	수업	
4	2(여)	사회학	동아리	
5	(복)3	기계공	육군	1학기경과
6	(복)4	경영학	육군	2학기경과
7	(복)2	신학	카투스	이번학기
8	(복)3	국문학	전투경찰	1학기경과
9	(복)3	법학	공군	1학기경과
10	(복)4	사회학	유엔군산하 판문점(육군)	3학기경과
11	(복)4	재료공	육군	3학기경과

IV. 연구결과

11명의 연구 정보 제공자들과의 인터뷰는 남성들에게 내면화된 군사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경험하고 재현하는 군사주의는 군 안에서의 ‘폭력’과 ‘여성 대상화’ 두 가지로 범주화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범주는 다시 대학 안에서 ‘위계적 선후배 관계’와 ‘후배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각각 재현되는 것으로 범주화 되어 연구 결과로서 모두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구성되었다. 각 범주는 괄호 안에 묶은 하위 범주를 가지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 경험에 대한 폭력중심의 서사: 폭력 사실의 누설을 막는 기제(폭력의 군사 기밀화; 폭력에 대한 협소한 정의; 폭력의 정도에 따라 서열화 되는 남성성; 폭력 피해자에서 폭력 가해자로의 순환 구조), 2) 군에서의 폭력 경험과 대학 내 위계적 선후배 관계(복학생들에 의한

내면화된 위계적식의 재현; 후배들에 대한 복학생들의 폭력 행사; 여자 후배로부터의 리더십 이양), 3) 군 경험에 대한 서사 속의 두 여성: 남성들의 군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남성의 '마음'을 보살피는 여성; 남성의 '욕망'을 보살피는 여성), 4) 군에서의 성 경험과 후배 여성에 대한 시선(동료 여성에 대한 일상적 대상화/도구화; 제대 후 지속되는 성상품화의 실천).

1. 군 경험에 대한 폭력중심의 서사: 폭력 사실의 누설을 막는 기제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는 군을 경험한 남성들과의 인터뷰가 군내의 어떠한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되더라도 '폭력'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2~3년간 머물렀던 부대의 특징을 이야기 할 때 이들은 군기가 '세다' '약하다'를 기준으로 한다. 그들이 군대내의 경치나 음식 맛 등을 이야기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남성 인터뷰이 모두 자신이 소속했던 부대를 폭력중심으로 서사화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폭력'은 징병을 남성 생애주기의 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 한국 남성성과 남성문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이다. 이들 모두가 폭력을 부정적으로 의미화하지 않았기에 더욱 그러하다.

7명의 남성 연구 정보 제공자가 하나 같이 폭력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군 생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폭력이 군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기제임을 드러낸다. 연구자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밖의 사람들이 군내의 폭력성에 대해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남성들이 폭력으로써 군 경험을 기억해내지만 그것을 외부로 발설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 몇 년의 일이다. 인터뷰를 통해 남성들이 군내 폭력을 폭력으로 의미화하지 않거나, 제대 군인들로 하여금 폭력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기제를 폭력의 군사 기밀화; 폭력에 대한 협소한 정의; 폭력의 정도에 따라 서열화 되는 남성성; 폭력 피해자에서 폭력 가해자로의 순환 구조 등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가. 폭력의 군사 기밀화

연구 정보 제공자들이 폭력을 의미화하는 방식은 “그 당시에는 폭력이라고 생각 안 했다.”에서부터 “남자니까 그런 것쯤은 참아야 한다.”등 다양했지만 아래 인용된 (사례10)의 경우는 폭력을 일종의 군사 기밀화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유엔군 산하에 있는 저희 부대는 육체적으로 단련을 많이 시키는데 폭력 같은 것

은 당연히 있었죠. 처음 2주일 동안 7킬로가 빠졌어요. 밥 먹으면 맞을 때 토한다고 해서 밥도 많이 안 먹었고...억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군사 기밀인데...얼굴은 드러나는 곳이라 미군들이 보니까 얼굴은 때리면 안 됩니다. 몸을 때리지요. 부대의 특성 같아요. 주먹이나 발 이런 걸로...말을 하는데 A는 B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잘못했다거나...병사들만의 규칙이 따로 있는데 그 규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제제를 받아요...폭력이라는 말을 쓴 게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 당시에는 폭력이라고 생각 안했어요....지금 말하다 보니 폭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10).

(사례 10)의 경우 ‘폭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억압적인 분위기” “제제”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했다. 자기가 당한 피해의 경험을 ‘폭력’으로 규정하기를 꺼려하는 듯했다. 폭력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는 녹음기를 꺼도 되냐고 물었고, 따라서 인용된 인터뷰 내용은 녹음 없이 연구조교가 받아 적은 것이다. 그와의 인터뷰 중에 폭력의 경험이 ‘군사기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연구자가 인터뷰의 내용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대한 지 2년이 다 되어서까지 폭력 사실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군사 기밀’을 발설하는 것은 좁게는 군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남자답지 않은 짓’이기도 하다. 한 때 군인이었던 남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남성들은 폭력 당한 경험을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투경찰로 복무한 (사례 8)의 경우 폭력 경험은 더욱 노골적이다.

나. 폭력에 대한 협소한 정의

닭장차(시위진압 버스)라고 하는데 거기 타면서부터 맞았어요...목을 때리더라구요. 상처는 안 남고 숨이 막히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요. 스치면 관등성명을 대야 돼요. 맞으면서 얘기하면 울먹이는 소리가 나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공포스럽고...단체로 샤워를 하는데 끝내고 나왔더니 동작이 느리다고 옷을 다시 벗으라고. 양쪽에 세워놓고 배를 치면서 가는 거예요. 아프기도 했지만 다 벗고 맞는다는 게 기분이 안 좋죠...구타는 오히려 편해요. 가혹행위가 있는데, 버스에서 엉덩이 5cm 들고 두 시간 동안 갔어요...저는 휴가를 한번씩 나올 때는 나오면 정상적인 세상인데 들어가면 비정상적인 세상이고 이 두개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휴가에서 부대로 들어갈 때마다 부대를 보면 눈물이 나왔어요. 체력 훈련하는 2주 동안은 안 맞은 적이 하루도 없었어요(사례 8).

(사례 8)의 경우는 ‘가혹 행위’와 ‘폭력’을 구분하고 있었다. 연구자에게 그 둘은 구분되지 않았으나 그에 의하면 가혹 행위는 선임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체벌을 가하는 경우라고 한다. 그가 예로 들어준 가혹 행위에는 이틀간 물 못 먹게 하기, 여름철에 일주일 간 샤워 못 하기 등이 있었다. 폭력에 대한 ‘엄정’하고도 협소한 기준이 군인들로 하여금 명백한 폭력도 폭력으로 인식하게 하지 못하는 기제이다.

다. 폭력 경험의 정도에 따라 서열화 되는 남성성

군기가 빠센 순서로는 해병대, 육군, 그 다음엔...공군은 별로 안쳐줍니다. 30개월 동안 있으니깐 다른 군보다는 병역기간이 길긴하지만 별로 맞지도 않고 편하다는 인식이 있죠. ‘넌 공군이잖아’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엔 비슷하죠...카투사는 아예 얘기도 못 꺼내죠. 거의 방위이나 공군(공익근무) 취급쯤 받을 걸요? 심하게는 해병대 다녀온 제 후배가 저 보구 참새라고 하더라구요. 화가 나는데, 개가 저보다 많이 맞고 훈련도 빠 세계 하고 온 건 만인이 인정하는 사실이니깐 화 낼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참았어요. 참긴 참았는데 후배가 그러니까 기분은 안 좋죠(사례 9).

논산에다 비하면 카투사에서의 열차려는 사실 말할 수준이 안 됩니다. 육군, 해병대 애들 군대 얘기할 때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카투사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직에 따라서는 웬만한 한국군보다 빠센 경우도 있고 해병대보다 힘들 수도 있지만 가만히 듣고만 있죠. 다른 애들이랑 만나면 ‘너 그렇게 편하게 생활했는데 뭐 힘들었다고 군 생활 얘기하냐,’ 그런 분위기가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있는 거 같아요. 그건 카투사끼리 모였을 때도 “우리 어디 가서 군대 얘기 안하잖아”, 이런 식으로 동병상련 격으로 이야기를 하죠(사례 7).

권인숙(2005b)의 카투사에 관한 연구에서도 군기의 정도에 따라 한국의 남성성이 위계화 되기 때문에 군기가 비교적 약하다고 알려진 공군이나 카투사를 다녀온 남성들은 (사례 9)와 (사례 7)이 진술한 것처럼 군대 경험을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함묵하는 처지가 된다. 권인숙에 연구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군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 카투사 내부에서도 ‘한국형 남성성’을 훈련하는 한국군 나름의 열차려나 ‘빠센’ 군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폭력이 남성성을 훈련시키는 기제 혹은 남성성 그 자체로 동일시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폭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차치하고 제대 후 폭력 당한 경험에 대해서도 발설하지 않는다. 자신의 남성성을 의심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례 8)의 경우가 그 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맞은 걸 기록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맞은 걸 몇 번 적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화가나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하다보면 남자가 이 정도도 못 참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참고 나갔잖아요. 이런 거 참고 나가야지 남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8).

(사례 10)은 언급했듯이 얼굴을 제외한 보이지 않는 부분만을 골라 구타한다는 ‘지능적’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그 경험을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폭력 자체를 군사 기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력, 체력, 사상을 기준으로 스스로가 엄선된 남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희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4년제 대학교 이상에 키 180 이상에, 친척들 중에서도 북한이나 사회주의에 연계된 사람도 하나도 없어야 하고 체력 검정, 한국어 발음테스트 이런 것도 보고. 의사전달을 똑바로 해야 위급 상황에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도록 테스트를 합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선택받았다는 느낌이 강한 부대였습니다(사례10).

남성들에게 군 경험에서의 폭력은 ‘희생’인 동시에 남자다움을 느끼는 ‘자부심’의 근원이다(정희진, 2005). 폭력을 희생으로 의미화할 때는 군 가산점제 논쟁에서 보인 것처럼 남성들은 희생자 정서를 갖게 되지만 자부심으로 의미화할 때는 여성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가부장적이면 가부장적일 수록 남성은 군에서의 폭력 경험을 남성적 자부심으로 재현한다. 폭력이 외부로 발설될 수 없는 중요한 기제이다.

라. 폭력 피해자에서 폭력 가해자로의 순환 구조

구타가 굉장히 심합니다만, 말년에는 나가기 싫을 정도로 편한 생활을 했어요. “나 때는 (폭력) 더 심했어,” 그런 말이나 하고 지내죠. 제대할 때쯤 되면 부대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과자 먹고 헬스하고 놀고...서열 세 번째 까지는 ‘얼외’라고 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다 보상해주는 그런 거라 근무도 안나가게 하고 편하게 왕처럼 지내는 거고 수발해주는 애들도 있고...제대하기 전에 3~4달이 편한 사람은 축복받은 기수고 저 같은 경우는 두 달...그래도 끝났다는 기분이란 옛날은 어땠지 얘기하고. 한 두 달 차이까지는 안 때리고 5~6달 차이 나면 때리죠. 때리는 기수가 정해져 있어요, 허락받은 기수라고...(사례8).

요즘엔 폭력이나 가혹행위 선임을 고발하면 그쪽(가해자 쪽)으로만 조사가 들어가는데 그 후임병에게 어떤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임 후임 차이가 있으니까 후임이 이해해야 하고 고참은 예전에 더하면 더했지...더 심한 훈련 겪으면서 거기까지 간 것이고...게다가 요즘엔 옛날처럼 그렇게 폭력이 심하진 않거든요...안 때리면 잘 안 되는 게 보여요...말을 똑같이 해도 때리는 애들 말을 먼저 들어요(사례 6).

선임병으로 제대를 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바뀌어 나갑니다. 폭력을 더 심하게 당한 친구들은 선임병이 되면 더 심하게 때리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 입대해서 그런 걸 당했어.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는 해도 자기가 어떻게 때렸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장은 군대에선 거의 신입니다. 그때 얘기는 잘 안 해요(사례 11).

우스개 소리로 복학생들에게 군 경험과 관련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일상이 폭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데도 제대 후 군대에서 가혹한 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다. 그 이유는 제대하기 전 모두들 “때릴 수 있는 기수” 즉 “허락받은” 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맞았던 것이 아니라 본인도 때릴 수 있었던 계급장을 달았고, 선임에게 맞은 만큼 후임을 때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8)은 한 때 폭력 경험을 폭로하려는 의도로 맞을 때마다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했지만, 그 역시도 “허락받은” 기수가 되면서 후임들을 때리게 되었으므로 외부에 폭로할 것이 없어서 버렸다. (사례 6) 역시도 폭력을 당하는 후임보다는 폭력을 가하는 선임과 동일시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한다. “신”의 경지에 올라 사병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많이 내려 본 병장 역시도 밖에 나와 맞았던 경험을 발설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군대 내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해결 모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제는 폭력의 군사 기밀화, 폭력에 대한 협소한 정의, 폭력에 따라 서열화 되는 남성성, 폭력 피해자에서 폭력 가해자로의 순환 구조 등이다. 이와 같은 기제들은 남성들로 하여금 폭력 경험을 성찰하지 않게 한다. 게다가 군대 말년에 “허락 받은 기수” “선임” 혹은 “신”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폭력에 대한 성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 후에까지 폭력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성들의 군내 폭력 경험은 대학 내 선후배간 위계적 질서로 나타난다.

2. 군에서의 폭력 경험과 대학 내 위계적 선후배 관계

연구 정보 제공자 모두는 훈련병 시절과 자대 배치 이후의 삶을 기술하면서 폭력을 그 중심에 둔다. (사례 8)은 “허락받은” 기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입대 시점으로 겨우 5~6개월의 차이만 있어도 선임이 후임에 대한 폭력을 “허락” 받았다고 말한다. 사실 바로 입대한 남성과 제대를 앞둔 남성은 입대 시점을 기준으로 겨우 2년여 정도의 차이만을 가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거지와 왕”(사례 8)처럼 판이하다. 2년 여의 시간차가 그럴 정도면 5~6개월도 무시할 수 없는 시차이다. 군대는 왜 폭력으로 다스려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례 5)는 “민주적인 것이 올바르지만 군대에서는 민주적인 것이 별로 적합하지 않죠. ‘억지로 잡혀’ 왔는데 누가 그것을 따라가겠어요. 유지가 안 되죠.”라고 말한다. 이처럼 폭력은 징병제 하의 군대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군내 질서유지를 위한 유일한 기제로서 의미화 된다. 이동훈(2001)은 군에서의 경험이 제대 이후에도 한 남성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연구 정보 제공자들에 의하면 군내 폭력의 경험이 제대 후 대학 내 선부배의 위계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가. 복학생들에 의한 내면화된 위계의식의 재현

민주적인 것이 올바르지만 군대에서는 민주적인 것이 별로 적합하지 않죠. 억지로 잡혀 왔는데 누가 그것을 따라가겠어요. 유지가 안 되죠. 후방에서는 이미 후임한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군대라는 게 특수한 조직인데...민주적으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하죠...(사례 5).

동아리에서 복학생의 위치가 회장보다 더 높아요...근데 동아리 행사에 참여는 안 해요, 그 사람들(복학생들) 회비도 안 내요. 그런데 동아리 방에는 계속 있어요. 기타 치고, 음담패설 하고. 자기들의 공간인 것 같아요. 회장은 복학생 설득 안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술자리에는 와요. 술자리 와서 자기가 평소에 안 좋아하거나 사이 안 좋은 후배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분위기 싸해지고. 아무래도 나이 때문인지...또 동아리 방을 좌식으로 만들자고 결정 한건데 복학생이 싫다고 해서 그냥 따르게 되고...복학생의 명령이나 조언을 거절하면 저 같은 경우에 완전 왕따가 될 것 같아요. 복학생의 파워가 엄청났거든요. 지금은 나왔구요(사례 4).

“특수한 조직”으로서 군대 안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무력화하고 그것을 내면화한 제대 복

학생은 후배와의 상호작용 방식 역시도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들이 후배의 행동과 선택으로서 자신이 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데 쓰는 동사(굵은 글씨)는 선후배 위계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과대표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군대 갔다 와서는 잘 안하는데, 관심 있으면 후배들도 도와주고 조언해주고...그러면 또 후배들은 **찾아와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술도 사주고 하죠. 회장 선거 나갈 것 같다고 하면 **세력 규합해주고**...일을 했던 사람이 고통이나 이런 걸 아니까...그래서 그런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더**라구요(사례 6).

재학생 애들을 좀 **혼낼** 때도 있지만 개네들한테 협조하려고 하죠. 리더가 잘 못하면 모임이 금방 소멸되니까 그 땐 **야단을 좀 쳐요**. 우리(복학생들)가 늘 **주시하고 있는** 걸 애네들(재학생들)도 아니까 잘 하려고 하고 지금은 또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화를 잘 안 내려고 하는데 왜냐면 처음에 화를 내면서 보니까 군대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서처럼 **후배들 갈구고**...“**너 미쳤나?**”라는 말을 군대에서 많이 썼는데, 그 말을 후배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애네들한테 충격적인가 봐요...교수님들에게 후배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화가 좀 나더라구요, 각뜻하지 않아서...그런 점이 후배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권위의식 같은 게 생기는 게 없잖아 있으니까(사례 5).

저는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5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건설현장에 있었거든요. 일하면서 아저씨들이랑 친해지고, 노가다랑 군대랑 약간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가다 하기가 편하더라구요. 학교 오니까 애네들은 고생 안 해본 애들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후배들이 어려 보이고 유치해 보이죠. 그니까 아주 큰 행사 선배들이 오는 행사에는 가는데 작은 행사는 안가죠(사례 8).

신과대학 학생이며 카투사에서 군 생활을 했던 (사례 7)은 남학생들 중 목회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신과대학의 특성상 다른 학과보다 재학생의 수가 복학생의 수보다 훨씬 많다고 말한다. 그는 신과대학 내 복학생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 신과대학이 다른 학과보다 선후배 관계에 있어 덜 위계적인 것과 관련 있다고 설명한다.

다른 과 신입생 수련회 같은 데서 일차려를 받는 친구 얘기도 들었구요. 보통 복학생들이 재학생들 일차려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신과대 분위기 자체가...선배라고 해서 대우해주거나 그렇지 않은 거 같구요. 어느 정도 예를 갖추긴 하지만 서로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고...그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요, 같은 또래처럼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거 같구요. 그게 아무래도 군대 문제랑 연관된 거 같아요. 목회쪽으로 관심 갖는 남학생들이 과반수라 군대를 적게 가다보니까 복학생이 많은 과에 비해서 군대처럼 위계를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우리 과 복학생 중에서도 한국군 갔다 온 사람들은 실제로 저한테 그래요. 재들은(후배들은) 왜 싸가지가 없냐고, 선배 아는 걸 너무 우습게 아는 거 아니냐. 그러기도 하죠(사례 7).

군대에서의 경험이 선후배 관계의 위계성에 영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례 10)은 자신의 변한 시각과 태도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스스로도 3, 4년 차이 밖에 나지 않는 후배들과 ‘세대차이’도 느낀다고 말한다.

군대 갔다 와서 태도는 확실히 고압적이고 그렇게 변했어요. 위계질서 따지고 그렇게 변해서 갔다 온 다음에 동아리나 제가 예전에 속해있던 집단에 안 나갔습니다. 예전엔 안 보였는데 재는 저런 게 열반네 후배데. 가면 즐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동아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자유분방한 건 좋는데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싫은 소리를 하면서 계속 나오거나 차라리 관두자고 생각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동아리 관렸어요...한 학년 후배들은 같은 세대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는 세대도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신입생들이 많이 바뀌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한 3, 4년 차인데...(사례 10).

제대한 복학 선배들이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만을 보이는 것이라면 위계적인 조직이 대학만은 아니므로 대학 내 선후배 관계를 굳이 문제 삼을 것까지는 없겠다. 그러나 제대 복학생들이 행사하는 ‘얼차려’는 물리적 폭력이 관련하는 것이므로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후배들에 대한 복학생들의 폭력 행사

1년 전까지만 해도 군대 갔다 온 복학생 형들이 몽둥이를 잡고 군기를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그 땐 학교가 군대 같았어요. 군대 갔다 오면 우선 안 갔다 온 애들이 아직 철이 없어 보이긴 하죠. 아마 그래서 그랬나봐요 선배들이...(사례 9).

저는 1,2학년 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선배들한테 얼차려 겪었고 제 친구는 그걸 후배들한테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지방 사립고 그

쪽에서 온 친구들은 위계질서가 강해서 동문회 때 선배들이 그러는 걸 당연시여기는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랑 같이 당했습니다. 그때 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많이 심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감자탕 집 이런 데 가서 감자탕 사주면서 기분 풀어주는 작업...(사례 10).

권오분(2000)은 남녀공학대학교 내 남자 선배들이 후배에게 주는 별로서의 얼차려에서 여학생들은 제외되며 그러한 제외성이 여학생들을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성 배제의 논리를 담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사례 10)에 따르면 여학생들에게도 얼차려는 주어진다. 남성중심적인 조직 윤리가 지배적일 경우 얼차려와 같은 남성적 행위는 여성까지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조직 안으로 여성이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다. 나윤경(2005)은 남녀공학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대학 내 남성중심성에 의해 다양한 층위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 침묵한다고 지적한다. 김은진(2002) 역시도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은 남성성을 수용하면서 예외 여성이 되기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주류에 편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비슷한 상황으로 (사례11)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얼차려를 ‘차용’해 여학생 선후배간 위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김은진이 지적한 남성성의 수용 전략이다. 그러나 김은진의 연구 결과는 그러한 전략이 여학생들로 하여금 주류로 편입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여학생들이 복학생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복협(복학생 협의회)은 재학생 남자를 잡고 여협(여학생 협의회)은 여학생끼리 굳기 잡고 하면서...운동 서클이라 그런지 몰라도, 검도부에 가니까 여학생들끼리도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좋았죠. 여학생이 여학생 혼내고, 남학생이 남학생 혼내고. 복학생들이 직접 혼내지는 않아요. 뒤에서 재, 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는 해도 직접 혼내지는 않죠...임원을 맡은 여학생에게 후배 교육 좀 잘 시켜라 이렇게 얘기 합니다. 복협이 먼저 있었고, 여협이 따라서 생겼는데 여협 조직, 구조, 문화가 복협을 빼다 박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동아리에서 여자가 회장도 되고 남학생들도 이끌고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사례 11).

저희도 똑같이 하게 되잖아요 후배들한테. 저도 에프엠 여자후배들한테 시켰었어요. 엠티 가서 캠프파이어 해놓고 동그랗게 있는데 돌아가면서 어차피 일학년들은 다 해야 할 상황이었던데요. 저도 일학년 땐 에프엠 싫어했었는데...목소리도 안나오고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누구해라, 그래 누구해라 여자애들 시키는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왜 했나 싶지요...(사례 1).

복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후배를 향한 권위적인 태도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권위적으로 읽히는 것만은 아니다. 학습과 관련한 활동에서 제대한 복학생들은 후배 여학생들로부터 ‘당연히’ 조장이 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의 결과로 후배들과 다른 위치에 서 있고 싶어 하는 제대 복학생의 권위는 합법화 된다.

다. 여학생 후배로부터의 리더십 이양

복학생들은 만능 콤플렉스가 있는 거 같아요. 자기가 뭐든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미시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면, 미시 얘기를 하려면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해요. 군대 있을 때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학교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도 약점을 보이기 싫어지니까...여학생들도 복학생을 잘 알죠. 그래서 알아서 피해주는...조모임 같은 걸 하면...조장을 복학생에게 맡기려고 해요. 선생님이 조장을 여학생에게 맡겨도, 학기 내내 복학생에게 의지하면서, 해 주기를 바라고...왜 그런지는 몰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요. 리드는 남자 복학생이 해야 하고, 여학생은 보조만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복학생이 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걸 용인을 하고, 더 달가워하고. 복학생이 의사 결정권도 갖고 책임감도 따르지만, 은근히 즐기고, 잘 되면 “오빠 멋져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고...(사례 11).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하면 뭔가 험한 과정을 견뎌내고 온 사람이잖아요. 뭔가 연륜이 있어 보이면서...공부에 대한 연륜은 아니지만 복학생이랑 조모임 하면 든든한 건 있거든요. 발표시키고 이래도 잘할 것 같은 든든함을 줘요. 실제로도 잘 하고...(사례 3).

발표 준비과정에는 별로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헤드릴 테니까 선배께서 발표해주시겠어요. 저희한테는 앞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뒤에서 준비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조모임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하시죠 이러죠. 여학생들도 리더십이 있는데 넘겨주는 것 같아요. 기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사례 2).

발표는 혼자서 해야 되는 거고 질문도 받아야 되잖아요. 간호대 같은 경우는 일학년 때 발표도 많이 했는데, 교양수업 들으러 본교 쪽으로 가면 이상하게 복학생 남자들한테 떠넘겨지게 되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나니까 리더십도 있을 것 같고...(사례 1).

군사문화를 문제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성별 정치학을 비가시화하면서 정상

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군을 경험한 구성원에게만 온전한 멤버십을 부여하는 공간에서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여성들은 나이, 신체적 조건, 경험, 그리고 리더십 등에서 군대를 다녀온(혹은 앞으로 다녀 올)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며 그러한 위계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임으로써 그것이 갖고 있는 성차별성이 비가시화 된다. 이러한 과정은 복학생들에 의해서 재현될 뿐만 아니라 재학생 여학생들의 순응 기제를 통해서 강화되고 학습되기도 한다. 여성적 역할과 남성적 역할을 재현하고 강화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서의 남녀공학대학교에서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도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심영희, 2005).

3. 군 경험에 대한 서사 속의 두 여성: 남성들의 군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

본 연구를 위한 제대 복학생들과의 인터뷰는 언급했듯이 전반적인 군 생활을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예컨대 “신병 때의 일상을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하는 식이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휴가에 관한 것이다. “신병 때 휴가는 얼마나 자주 가질 수 있나요, 휴가 때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죠?”라고 물었다. 휴가에 관한 질문의 답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개 여자들인데, 입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나 대학 여자 동기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이다. 군인들은 그녀들 혹은 그녀들 중의 한 명을 만나고자 휴가를 학수고대한다. 이 점에 대해서 정희진(2005)은 남성들이 군에서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후에는 여성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들의 보살핌을 받은 후라야 남성들은 다시 고통의 장소, 군대로 복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녀들을 각각 남성의 ‘마음’을 보살피는 여성과 남성의 ‘욕망’을 보살피는 여성으로 명명한다. 그녀들이 갖는 공통점은 남성으로 하여금 군 생활에 충실하도록 돕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녀들은 간접적인 국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녀들의 역할은 비가시화 되거나 성매매 여성의 경우 폄하된다(권인숙, 2005; 정희진, 2005).

가. 남성의 ‘마음’을 보살피는 여성

군대 가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아직도 만나는데..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 참 잘했어요. 때마다 선물 보내주고 연말에는 카드도 저의 내무반 30명에게 모두 하나씩 써서 보내고...(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나요?) 아니요.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여자 친구 분이 내무반원들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요?) 당연히 이름은 모르고, 나한테도 물을 수도 없었으니까 “해” 병장님 “달” 병

장님 “별” 상병님 뭐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모두에게 카드를 보낸 이유는요?) 고참들에게 저를 잘 부탁드리려고...(사례 6).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 사람들이 그 여자를 과부처럼 취급하거나 남편이 어디 출장 간 여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남자 친구들이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면 야단치고 기다리게 해요. 면회도 같이 가 주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군대간 사람들이 불쌍해서...남자는 군대가서 일하고 있는데, 딴 남자를 사귀고 있으면 그 남자가 불쌍하잖아요. 그때 내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갔었기 때문에 고무신 바꿔 신은 제 여자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더라구요(사례 5).

남자친구가 군대 간 여자 후배나 친구라면 다른 남자와 사귀는지를 주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군대에 남자친구 있는데. 다른 애 사귀면 안 된다...뭐 그렇게 다른 여자애들도 가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사례 11).

20대 연애의 단기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연애문화로는 50일 기념, 100일 기념 등이 있다. 수십일 정도 지속된 만남도 기념을 해야 할 만큼 이들의 연애 지속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애 풍속에 예외가 있다면 아마 군대간 남성과 그 여성의 관계가 아닐까 한다. 남자친구가 입대하고 나면 그의 여자친구는 그가 군에서의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보살피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사례 6)에서의 경우처럼 여자친구 스스로는 물론 (사례 5)와 (사례 11)처럼 군에 간 남성의 주변 사람들이 그 여성의 행실을 ‘관리’함으로써 그녀가 입대한 남성의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그녀는 그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그를 정신적으로 보살피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수행하는 이 역할이 완수되었을 때(그가 ‘무사히’ 제대했을 때) 그녀의 돌봄 노동은 비가시화되지만, 그를 돌보지 않고 그와의 관계를 청산한다면 그녀는 “고무신을 바꿔 신은” 채 가시화된다. 그녀들의 돌봄이 비가시화되는 맥락은 아래의 인용에 잘 나타난다.

(여자친구가) 나만 쳐다보고서는 2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사람 맘이 변할 수도 있는데, 나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2년 기다린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거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순간 좋아도, 생각 좀 더 해보게 되는...(사례 11).

여자친구가 제가 군에 있을 때 너무 잘 해줘서 아직도 되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

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해 주려고 하는데...바빠서 잘 안 되니까 요즘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사례 6).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의 보살핌 덕분에 군 생활을 잘 마치게 되는 군인들은 제대와 동시에 더 이상 그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례11)의 진술에서 드러난 것처럼 오히려 제대한 그가 ‘군화를 바꿔 신을’ 수도 있다. 그녀들의 보살핌 노동은 완수되었을 때 이처럼 무화되거나 비가시화되기도 한다. 비가시화되는 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만이 아니다. 과나 동아리의 여자 친구들(여자인 친구들) 역시도 그 역할을 수행한다. 한 명의 남성이 입대하고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는 것이 그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은 주위 여성들에게 ‘당당하게’ 보살핌 노동을 요구한다. 그녀들은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한다.

여자후배들은 제대하기 전까지 (편지) 써줬습니다. 00학번 후배들이. 내용은 그겁니다. 여자후배들도 남자후배들이랑 다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누구랑 뭘 했는데 열심히 구르고 있을 오빠가 생각난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라...뭐 그런 거죠...(여자한테 편지 받으면) 아무래도 상당히 우쭐해 합니다. 저는 부대 배치 받을 초기까지 휴가 얼마나 자주 주는지 몰라서 여자 후배들에게 자주 쓰라고 했었습니다(사례 5).

제 주소를 가져갔으니 먼저 편지를 보내죠. 잘 있다며 답장 꼭 해달라고 하면서. (답장 꼭 써달라는 이유는 뭐죠?) 외롭고 심심하고 뭐 그런가 봐요. 상사들이 구박하고 외롭고 하나까...의지할 데는 없고 힘들고 제대 바로 전에는 지루하고 할일이 없으니까...(사례 3).

군대에 갈 때 친한 여자들 주소 다 갖고 들어가는데 부대에 배치되자마자 과 동기 여자애들한테 편지 썼어요. 편지 끝에는 나한테 꼭 답장하라는 걸 잊지 않고 썼어요. 군대가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도 여자애들은 답장을 해 주더라구요. 그러면 그 답장들이 저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남자 편지는 안 쳐주죠(사례 10).

권인숙(2005a)과 권오분(2000)은 남성들만이 군대에 ‘갈 수 있는,’ 즉 그들만이 완전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징병제는 전형적인 성별정치이며, 그 안에서 여성은 남성의 시민권 획득을 위해 다양하게 동원되지만 그녀들의 역할은 비가시화되며 주변화된다고 말한다.

그 남성들에 대한 ‘돌봄’ 노동에 동원되는 또 다른 그룹의 여성들이 있는데 바로 군부대 근처의 성매매 여성들이다. 그녀들의 노동은 비가시화, 주변화에 더해 폄하되고 무시된다.

나. 남성의 ‘육망’을 보살피는 여성

휴가 때 서울에 있는 사창가 갔다 와서는 내무반에서 떠들어대는 거죠...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집이나고 묻고 주의해야 할 것도 물어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처음 입구에서 잡는 곳은 가지 말고, 그 여자들한테 초보인 티를 내면 안 된다. 우습게 보니까 많이 가본 것처럼 해라. 반말하고 함부로 대해야 무시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반말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욕을 하거나 면박을 주거나...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거기 있는 여성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남자들이 좀 얌전하게 노는 것 같지만 그런 곳에서의 성경험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사례 5).

사창가 다녀 온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듣고 있으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달에 한번씩 월급 받으면 꼭 가는 사람들도 있고, 같잖이라고 음모에 서식하는 별레가 있거든요. 어떤 애가 나가서 그걸 얻어 왔어요. 격리돼서 치료를 받는데 다 낫고, 그런 병에 걸렸으면 못갈 것 같은데 완치될 쯤에 또 가더라고요. 여럿이 갈려고 계도 만들고 얼마씩 모아서 몰아주기도 하고. 추천해서 애 보내주고 다음달에 애 보내주고 하는 식이죠. 안 간다고 하면 가자고 끊임없이 요구하죠(사례 8).

보통 남자들은 거의 군대를 가면...(사창가) 거의 다 간다고 볼 수 있구요. 선임들이 다 끌고 가기 때문에...사창가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한번 가면 보통 십만원 내외로 든다고 보면 될 거 같은데요...월급으론 못 가구요. 휴가 나와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주는 용돈으로 가는 거죠. (사창가를 안 가는 남성도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직도 못 가봤냐고. 비하하는 분위기고, 그런 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소수예요. 한 내무반에서, 2, 3명 정도? 지저분해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구요, 병 때문에 안 가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안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잘 안 가죠(사례 9).

중학교 졸업자부터 석박사까지...한 내무반에 30퍼센트 정도만 대학생, 나머지는 그 이하...결국에는 학력 상관없이 똑같아지지만. 고졸 이하 사람들은 이미 그런 생활(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에 익숙해져있고, 그럼 대학생도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보다...하향 평준화되죠...그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 때는 그렇게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사례 11).

치즈코(1999)는 군대 안에서 형성된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모성과 창부성’이라는 이중성에 기반한다고 했다. 이동훈(2001)에 따르면 군대 안에서 군인 교육용으로 제작되는 영화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탈영했을 때 가장 고통 받는 존재로 묘사된다고 한다. 아들은 어머니가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화 된 조국을 위해 끝까지 병역을 마칠 것이 기대된다. 이처럼 어머니가 군인이 모든 욕망을 억누른 채 희생해야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면, 어머니 반대편에 있는 창부는 그가 희생하는 동안에 유보했던 욕망을 맘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며 도구이다. 성매매 여성을 ‘수단화’하여 그들의 욕망을 해결하는 데는 학력도 학벌도, 그리고 성병의 경험 여부도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녀들을 도구처럼 함부로 사용하기 위한 ‘노하우’도 있다-반말, 욕, 술, 공격성 등. 군인들의 욕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부모와 친척들 역시 용돈을 매개로 간접 동원된다.

남성의 욕망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을 때에만 그는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여성은 어머니만 빼고 모두 창부로 의미화 된다. 이동훈(2001)은 어머니로서의 여성과 창부로서의 여성 이미지 모두 왜곡되었으며 남성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허구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특히 그들이 군 생활 동안 과도하게 탐닉했던 창부성을 지닌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군 제대 이후에도 남성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일상생활에서 여성 차별과 대상화 기제로 재생산된다고 본다(심영희, 2005; 이동훈, 2001).

4. 군에서의 성 경험과 후배 여성에 대한 시선

군대 안에 있는 남성들에 의해 구성되어진 왜곡된 여성 이미지가 군 밖으로 시차 없이 전이되는 공간은 대학교이다. ‘복학생’의 신분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온 이 남성들은 군에서 형성한 여성에 대한 이미지로 학교 안 익명의 여성들을 대상화한다. 또한 여성을 도구화하여 욕망을 해결했던 경험이 ‘습관’처럼 몸에 남아, 제대 후에도 ‘유사 사창가’를 다니며 군인 시절의 생활을 재현한다. 여성에 대한 성적 도구화가 일상화 되어버린 것이다. 이동훈(2001)이 지적한 대로 군에서 접한 남성중심적인 성 담론이나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 경험, 왜곡된 성

역할 의식 등이 제대 이후에도 남성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다. 이 최초의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남녀공학대학교라는 공간이고, 여기서 군대문화와 일반사회가 소통하면서 우리사회의 가부장성을 유지 강화한다.

가. 동료 여성에 대한 일상적 대상화/도구화

제대 후에는 여자들을 성적으로 조금 더, 성적인 면을 조금 더 많이 보게 돼요... 옛날엔 얼굴 예쁜 게 최고지...근데 몸매를 보게 되더라구요. 정신적인 교감보다는 섹스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보게 되더라구요. 복학생끼리 아주 섹시한 여학생을 보면 “맛있겠다” 그런 정도까지도 말을 하죠...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도...스포츠카를 티비에서 좋은 차라고 선전하니깐...스포츠카 보면 관심을 갖잖아요. 여자도 마스크에서 섹시하다고 하는 여자한테 고개가 돌려지는 거죠. 제 생각에는 군대가 촉매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성경험이 늘어나겠지만 군대는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사례 8).

학교에 있는 여자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얘기는 1,2학년 때는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이쁘다, 괜찮네, 이런 정도죠. 근데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는 남자들이 상상을 하는 게, 같이 하루를 보내면 어떨 거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여자가 잠잘 때 좋겠다. 먹음직스럽다...그런 표현도 하고(사례 7).

군대 가면 여성에 대한 관점은 확실히 많이 바뀌는 거 같아요. 대학교 때까지는 남녀관계가 평등하게 지속된다고 생각하는데, 군대가면 여성이 친구에서 성의 대상, 같이 있으면 즐겁고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섹슈얼리티 그런 거를 중시하게 되는 거 같아요...할머니가 이빠보인다, 이런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성적인 생각을 군대 가기 전보다 열배는 많이 하는 거 같아요...“방금 지나간 애 진짜 클래머 아니냐, 가슴이 착하다, 몸매가 선량하다...” 이런 식으로...(사례 10).

내가 친한 복학생 선배 중에도 여자를 너무 사귀고 싶어 하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성격 더러워도 되니까 얼굴 되고 몸매 되면 된다면서 소개시켜 달라고 제 친구들만 보면 눈 휘둥그렇게 뜨고 그러더라구요. 너무 싫어요(사례 2).

동료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여성들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아래 인용된 (사례 2)와 (사례 4의) 경우는 후배 여학생들이 술자리와 뒤풀이에서 복학생들의 흥을 북돋우어 주는 존재로 도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여자 후배에 대한 도구화

는 이들이 군복무 시 성매매 여성들을 도구화하는 것과 비슷한 기제를 갖고 있다. 또한 여자 후배들 앞에서 늘어놓는 음담패설이라는 것도 역시 그 여성들을 당황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여, 결국엔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후배 여성들을 도구화하느냐 것이다.

군대 갈 때는 제가 입학할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대 환영회는 했어요. 동아리 일원이니까 환영회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재롱을 떨었어요. 망가지는 역할을 맡았어요. 술 많이 마시거나 춤추고 놀고 그런. 음악은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노래 불렀죠...제 동기 남자애들한테는 안 시켰어요. 제가 새내기 때였거든요. 제가 제일 어리니까 하라고 하는데...술도 복학생들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술 안 좋아하는데...그리고는 앞에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거예요...리트머스 종이를 여자 몸에 대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한대요. 그러면 성경험이 많은 거래요. 그런 걸 알려주는 시험지를 개발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내기 여자들 앞에서... (사례 2).

복학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축구, 농구 모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예뻐하는 여자한테는 매니저 하라고 막 졸라요. (매니저의 역할이 뭐지요?) 뒤풀이 장소 섭외하고 운동할 때 이것저것 봐주는 거예요. 뒤풀이 가서 같이 놀고. 응원해 주고...매니저 여자들이 많을수록 남자들한테 좋은 거죠. 침부터 예쁘고 잘 노는 애들을 골라요. 자기들이(사례 4).

복학생들 음담패설 많이 하죠. 좀 밝히는 걸 많이 느꼈어요. 뭔가 여자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는 것 같고...드러나게 가슴을 쳐다보거나. 다리를 쳐다보거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게(사례 3).

복학생들의 동료여성들에 대한 대상화/도구화는 그들이 제대 후에도 성매매 여성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군복무 시 익숙했던 성을 사는 행위가 제대 후에까지 계속된다면 이들에게 범주화 되었던 ‘어머니와 창부’로서의 여성보다는 모든 여성은 창부로 재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정희진(2005)은 군인들이 성매매 여성에게 모성을 기대한다는 점을 들어 어머니와 창부라는 이분법이 임의적이라고 지적한다. 보살핌의 노동을 핵심적 역할로 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와 창부는 사실상 분리될 수 있는 두 그룹이 아니다. 여자 후배들은 공적으로 만나는 복학생 선배의 눈빛이나 태도 등에서 그것을 감지한다.

나. 제대 후 지속되는 성상품화의 실천

안마방 같은데...가더라고요. 사창가보다 안마가 더 좋다고 평이 요새 그래요. 사창가는 무조건적인 성행위만 하잖아요. 안마는 중간중간 얘기도 하고 안마도 더 자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요새 사창가는 규제가 심하니까...군대를 안 다녀왔으면...그런 곳에 용감하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군에서 얘기 듣고 보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쉽게 여성을 돈 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사례 8).

한 번 (사창가에) 갔던 친구들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한번 피우면 계속 피우는 것처럼 제대 후에도 지속적으로.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대학생이긴 한데 일반적인 인식의 대학생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학문에 정진하고 티비 시트콤에 나오는 것처럼 남녀관계도 아기자기하게 맺고, 자기 이상, 열정...그런 친구들을 대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그런 모습들을 잃게 되죠. 안마방 그런 데도 일학년 때는 그런 텔 왜가?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면 어디가 좋냐, 그런 얘기를 스스로없이 하곤 합니다. 여학생들은 복학생들이 그런 데 간다는 거 절대 모릅니다. 남자친구가 사창가 간다는 것도 절대 모릅니다. 군에 다녀온 남자들은 사창가 가는 것을 빙수를 먹고 피씨방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하는 것처럼 서비스 개념으로 생각합니다(사례 10).

나이 많은 복학생 선배들이 날 대할 때도 후배로 대했으면 좋겠는데 여자로 보거나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꼭 날 좋아한다는 의미는 근데 아니예요. 나랑 친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젠 좀 경계하게 되요. 아무래도 동기 남자와는 달라요. 그래서 조모임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고 뒤풀이나 사석이 될만한 곳엔 안가요. 여자애들이 주로 그래요. 근데 또 사석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오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땐 싫지만, 같은 조하는 게 불편하지만 꼭 참고 나가긴 해요. 얼마나 노력하는데요(사례 1).

남성이 여성의 성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의 위계, 즉 여성과 남성의 위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젠더 위계를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제대 복학생이 양성이 평등할 수도 있다는 혹은 평등해야 한다는 정치·문화적 가능성과 당위성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남성들이 뿔어내는 편하지만은 않은 분위기 때문에 종종 여학생들은 불필요한 감정 노동을 하게 되며,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로 여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여성과 남성,

특히나 동료로서의 여성과 남성이 서로에게 대상화되지 않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대학은 양성간의 문화적 각본으로 충일한 관계를 맺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권인숙은 최근 펴낸 책 『대한민국은 군대다』의 서문에서 군사독재 정권에서 근대화를 경험했으며, 군사독재 타도를 위해 20대를 운동권에서 보냈던 자신이 ‘군사화된 삶’의 틀로 자신을 분석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당혹스러워했음을 말한다. 그가 인용한 씬씨아 인로(Cynthia Enloe)는 “군사화는 한 사회의 어떤 부분이 군대나 군대의 가치에 의지하거나 지배당할 때 일어난다.”(권인숙, 2005a: 28)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들의 의식적 자각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잭 메지로(Jack Mezirow) 식으로 표현하자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the taken-for-granted)이다. 군사화된 삶이 우리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인 이상, 그것은 객관적 분석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것은 표준이며 정상이기 때문에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현상을 분석한다는 것은 분석의 결과를 표준이나 당위에 기대어 해석하고, 그것이 그 표준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표준, 당위, 당연한 것들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분석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표준과의 거리가 제로인 ‘표준’으로 해석될 것이다.

1) 군 경험에 대한 폭력중심의 서사, 2) 군에서의 폭력 경험과 대학 내 위계적 선후배 관계, 3) 군 경험에 대한 서사 속의 두 여성, 4) 군에서의 성 경험과 후배 여성에 대한 시선 등으로 범주화된 연구 정보 제공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2~3년 동안 군대를 경험한 남성들이 내면화한 군사화된 가치와 그것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여성들을 보여준다. 인간관계는 위계적이며 그 위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가시화된 남성의 병역의무에 비해 여성의 돌봄 노동은 비가시화된다는 것, 여성의 성은 남성 구매자에 의해 상품화, 대상화될 수 있다는 것 등이 바로 군사화된 가치이며 우리사회에서 당연한 남성성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이다. 남성을 군사화한 결과가 우리사회에서 수용되는 정상적인 남성성이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화된 가치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여성의 경험과 시각에서는 물론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민주, 평등, 자유, 진리, 인권 등의 가치에도 군사화된 가치는 위배되기 때문이다. 대학 밖에서 군사화된 남성성이 일정 정도의 폭력성을 허용하고 여성의 성 상품화를 수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군의 재학생들에 의해 양성평등교육을 표방하는 대학교에서

재현되고 다양한 경로로 강화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학습된다면 그것은 대학에 의해 개입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논문의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학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학적 조명을 거의 받지 못했다. 대학생들이 교과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학습과정은 제도권 교육 담당자들의 관심이겠지만, 예컨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군 입대 전 남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제대한 남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등은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을 경험하는 대학 재학 남학생들이 군 입대 전에 민주적이고 성평등적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해서 환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제대한 복학생 역시도 군복무 기간 동안 내면화했는지 모를 비민주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시선과 실천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노출된다면 대학 내에서 보이는 다양한 층위의 남성중심성(나윤경, 2005)이 보다 평등한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징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폭력이 아니면 구성원 간 질서 유지가 어렵고 여성의 성 상품화가 일상적 가치로 의미화 되는 군대라는 공간과 일반사회 공간으로서의 대학교가 상호소통하는 방식은 후자가 전자에 영향을 주는 것일 때라야 의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공간의 상호소통 방식이 역으로 되어 있어 대학교육의 선후배간 관계와 성별 관계를 평등하게 구성해내지 못함을 드러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교육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학이 침묵함으로써 위계적 선후배 관계와 성별 관계에 동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결과 제대 복학생들에 의한 군사주의는 계속적으로 재현될 것이며, 강화되고 구성원들에 의해서 학습될 것이다. 성평등성과 구성원간의 민주적 관계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대학이 학습자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관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사회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제도교육 정점으로서의 위상은 부당하다.

대학생들은 생애 발달 단계상 성인 초기에 위치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재학 중 내면화하는 가치는 성인기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인식에 기반, 대학은 성평등적이며 민주적인 가치가 기능하는 공간으로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 과정 중의 하나로 대학과 군사주의를 만나게 하는 매개자로서의 복학생들에 대해 군사주의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적응 프로그램의 기획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권오분(2000). 군대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권인숙(2000). 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과 평화** 창간호. 여성과 평화. 133-161.
- 권인숙(2005a). **대한민국은 군대다**. 서울: 청년사.
- 권인숙(2005b). 체계모니적 남성성과 병역의무: 카투사의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2). 한국여성학회. 223-254.
- 김은진(2002).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대학의 '여성리더'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김현미 외(2005).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 교육: 문화/젠더 감수성을 지향하며. 연세대학교 여성인력개발원 2005 추계 학술심포지움.
- 나운경(2003). 남녀공학대학교 여학생들의 커리어 개발을 위한 자기 성찰적 전략. **안드라고지 투데이** 6(3). 한국성인교육학회. 51-81.
- 나운경(2005).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 남녀공학대학교의 남성중심성: 여자대학과 남녀공학대학교를 경험한 여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2). 한국여성학회. 181-221.
- 박노자(2000).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 변화순(1995). 가부장적 군사문화가 여성의 삶에 끼친 영향. **여성연구** 8(9). 한국여성개발원. 71-92.
- 심영희(2005). 분단, 평화, 여성: 여성비안보를 넘어 여성안보로. 광복 60년 기념 제7차 종합학술대회 한국여성학회. 3-28. 10월14일. 서울: 연세대학교 광복관
- 유영숙(2002). 여성장교의 경험으로 본 한국군대의 젠더정치.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동훈(2001). 군대문화의 남성중심성과 양성평등교육.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해숙 (1997). 대학의 성별구성이 여학생의 교육경험 및 교육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정희진 (2005). 군사주의와 남성성: 한국 '평화' 운동의 남성연대 비판을 위한 시론. 광복 60년 기념 제7차 종합학술대회 한국여성학회. 143-158. 10월14일. 서울: 연세대학교 광복관
- 홍두승(1996). **한국군대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 논문 접수 2005년 10월 31일 / 수정본 접수 12월 12일 / 게재 승인 12월 20일
- 나윤경 :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컨신 주립대학교에서 평생교육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함.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관심분야는 여성문화, 여성학습, 여성리더십 등임.

Abstract

**Militarism represented, reinforced, and
learned on Korean co-ed campus**

Nah, Yoon-kyeong(Yonsei University)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since the Korean War which was made a truce in 1953, three years after the war had been ignited by North Korea. The armistice has made it inevitable for South Korea to become one of 76 countries which oblige young men (and women) within a certain range of age to become military personnel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Men in college are not an exception to the rule. Most of them consider fulfilling their duty as military personnel during their sophomore or junior, with a few of them delaying their service until the completion of under-graduate or graduate program. As a result, little less than a half of Korean male students on campus are those who served in the military in various forms such as the army, the navy, the air-force, the combat-police, KATUSA(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United States Army) or public personnel.

Although I mentioned the Korean War as a cause of the obligatory military duty conferred on Korean men, the common experience of Koreans as the colonized of Japanese Militarism also contributed to making it a duty for Korean men to serve in the military. Chronologically speaking, the Korean independence of Japan was accomplished in 1948,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and lasted three years, the military government of the late president Park took the office in 1963 and continued for 16 years, and then subsequent military government came in and went through 1987. Thus the modern history of Korea is not possibly discussed without militarism. However, though the militarism has been prevailing in and become hegemonic of the society, few utilizes it as a unit of analysis in understanding the society. In addition, compared to masculinity and patriarchy, militarism has been much less explored by researchers. Particularly, co-ed colleges, majority of whose population are men dealing with military service as their past, present,

and future form of duty, have seldom been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s with militarism in mind.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militarism on co-ed colleges. Since military or militarism assumes the dichotomy of “the protected” (women, children, and the powerless) and “the protector”(men, adults, and the powerful), analysis in the present study will look at the dynamics between women and men learners and its influence on their learning on campus.

Interviews with women and men (4 women and 7 men) in colleges were performed to find out how men’s experiences in the military exert influences on the dynamics between both genders. Research findings will contribute to making policies for gender equity education on campus.

* Key words: co-ed college, militarism, college students, college culture, lifelong education